

한국의 불교 신앙

Buddhist beliefs in Korea

1주차

불탑 및 사리 신앙



목 차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III	퀴 즈	21
-----	-----------	----

IV	토 론	23
----	-----------	----

V	참고문헌	23
---	------------	----



I. 학습안내

1

강의개요

불교 신앙의 여러 모습과 특징을 이해하고, 한국 불교 신앙의 흐름을 개관한다.

2

학습 목표

1. 불교 신앙의 여러 모습을 파악한다.
2. 불교 신앙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한국 불교 신앙의 흐름과 시대적 성격을 이해한다.



3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불탑 및 사리 신앙
2주차	정토, 대승불교의 히든 카드
3주차	관음, 현세의 구원자
4주차	지장 시왕, 명부를 주관하다
5주차	다라니 신앙
6주차	고대 불국토 신앙과 국가
7주차	고려 불교 의례의 실행과 기원
8주차	조선 내세로 이어진 효
9주차	조선 민간 신앙의 융합과 불교화
10주차	근현대 · 근대 종교와 대중화



II . 강의

1-1

석가모니의 열반과 사리의 출현

불교 신앙 강의의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의 주제는 불탑 및 사리 신앙입니다. 1주차, 불탑 및 사리 신앙 강의는 총 5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첫째, 불탑과 사리 신앙이 불교 종교화의 첫 걸음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한국 사리 신앙의 흐름과 성격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의 열반과 사리의 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첫째, 석가모니의 열반과 사리 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둘째, 사리를 봉안한 공간인 탑의 종교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인 사리의 종교적 의미와 탑의 조성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고타마 싯달타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는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고 출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그 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답을 찾았던 순간에 깨달은 자, 즉 부처, 부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부처를 석가모니라고 칭합니다.

사진은 바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곳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현재 보드가야에 있습니다. 이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처음에 녹야원, 그러니까 사르나트에서 전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곳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8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열반에 듭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죽음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가 열반에 들었던 곳은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였습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열반은 조각이나 그림으로도 많이 표현됐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통도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화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석가모니께서 옆으로 누워서 열반에 드신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열반 후, 사람들은 고대 인도의 전통에서 전해지던 전륜성왕의 장례 예법에 따라 다비를 했습니다. 다비란 화장을 뜻합니다. 그 장면이 이 그림의 위쪽에 묘사되어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깨달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비 후에 뺏가루만 남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리가 남겨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송광사의 불화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수많은 사리가 쏟아져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석가모니가 살아계실 때 그의 말을 듣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사리가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리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하찮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돌아가신 석가모니가 남긴 것이라고 여겨서 사리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사리를 가지고 싶어 해서 싸움도 났다고 하네요. 경전에 따르면 이때 사리는 총 8곳으로 나눠져 분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사리가 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귀하게 가져온 사리를 아무렇게나 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리는 특별한 곳에 모셔졌습니다. 그 특별한 곳이 바로 탑입니다. 인도에서는 스투파라고 불렀는데요.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탑은 석가모니께서 남기신 귀한 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또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리를 탑에 봉안했다고 하면 탑 안에 어떻게 사리를 두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하는 방법이라든지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 고대의 탑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인 불국사 삼층석탑, 즉 석가탑의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석가탑입니다. 이 석가탑의 2층 탑신 안에서 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당시에 사리를 모셔둔 사리함이 발견되었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리는 귀한 것인데, 그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만을 탑 안에 모시기는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물상자 같은 곳에 따로 넣어두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귀한 사리를 단독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은 석가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모습입니다. 초록색 유리병 안에 사리를 넣고, 다시 은으로 만든 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기술로 만든 사리함에 넣은 상태로 2층 탑신 안에 봉안했던 것입니다. 이 사리함은 만들어질 당시 불교공예기술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미술사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장례 후 사리는 총 8곳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에는 아소카 왕이 즉위해 있었습니다. 이 아소카 왕은 불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깊었고, 이를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소카 왕은 8대탑을 발굴하고 사리를 8만4000으로 나누어 여러 곳에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8만4000은 정확한 수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석가모니가 남긴 사리는 여러 곳으로 전해질 수 있었고, 따라서 사리를 봉안한 탑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탑은 중요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다음에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여러 곳으로 전해질 때 탑을 조성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대의 불교를 받아들였던 한국에도 1000여 개가 넘는 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각각 백제의 정림사지 오층석탑, 고려시대의 탑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그리고 모전으로 만든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돌이라든지 나무, 벽돌, 또 돌을 다듬어서 벽돌처럼 만든 모전을 사용해서 다양한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에 대한 신앙 활동으로 상징적인 형식은 탑돌이가 있습니다. 탑돌이란 탑 주위를 돌면서 개인이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고대에서부터 형성되어 현재에도 지속되는 탑 신앙으로, 일종의 풍속이 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김현이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감동시킨 내용을 전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신라 풍속에 2월이 되면 초파일부터 보름까지 남자와 여자들이 흥륜사의 전각과 탑을 다투어 돌며 복을 비는 풍속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앙의 힘으로 호랑이마저 감동시킨 신라 원성왕 때의 김현이라는 사람도 탑돌이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탑돌이의 풍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월정사 탑돌이 모습과 같은 모습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열반을 계기로 사리가 출현하고, 그 사리가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귀하게 여겨진 사리를 봉안한 곳이 바로 탑이기 때문에 탑이 불교 신앙 활동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리의 종류와 그 신이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리의 종류와 신이

이번 강의에서는 사리의 종류와 사리가 지닌 신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사리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둘째로 사리의 신이와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리는 산스크리트어 ‘사리라’의 번역어입니다. 처음 인도에서는 시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부처가 남긴 성스러운 것을 사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교적 세계관 내에서 말하는 여러 부처의 사리를 포괄해서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부처의 사리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리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존재의 사리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부처의 사리와 승려의 사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사리, 즉 불사리는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처의 사리가 공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승려의 사리도 공경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승전 등의 기록을 살펴 보면, 승려의 시신을 화장하고 난 후 사리를 모아 탑에 안치하는 이야기들이 여럿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찍부터 승사리 개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종의 확산 이후에는 승려 사리에 대한 공경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리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사리가 어떤 물성을 띠고 있는가, 즉 어떻게 생겼는가를 들 수 있습니다. 사리가 동그란 보석처럼 생긴 경우에는 보주형 사리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가 보주형 사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처의 유골의 일부가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부처의 어금니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머리뼈 또는 손가락뼈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리의 경우에는 골아형 사리라고 칭합니다. 보주형 사리에 비해서 골아형 사리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 성스럽게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특히 황실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골아형 사리 신앙을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의 봉정암, 사자산의 법흥사, 태백산의 정암사,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가까운 중대 등 총 5곳에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진신사리를 예경하기 위해서 진신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앞에 적멸보궁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적멸보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한 중인도 마가다국 가야성의 남쪽 보리수 아래의 적멸도량을 뜻하는 전각으로, 불사리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이곳에서 적멸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신인 사리를 모시고 있는 이 불전에는 따로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말씀드린 5개의 적멸보궁 중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역사가 깊은 통도사입니다. 조금 전에 적멸보궁의 불전 안에 들어가면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스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불상이 보이지 않고 창문이나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창문 뒤로는 왼쪽과 같이 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도사의 경우에는 진신사리를 모신 곳에 계단을 함께 설치한 것이 특징 중 하나인데요. 아무튼 가운데 보이는 종 모양의 구조물 아래에 부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골아형 사리를 모신 대표적인 곳으로는 남방불교를 대표하는 곳 중 하나인 스리랑카 캔디에 있는 불치사를 들 수 있습니다. 4세기경 이 지역에 전해졌다고 생각되는 치아사리, 즉 불치를 모시고 있습니다. 골아형 사리를 모신 곳으로 중국에서 대표적이 곳은 법문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부처의 손가락뼈 사리가 모셔졌다고 알려졌는데,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1981년에 불탑이 절반이나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하 보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불치가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치를 모시면서 함께 봉안됐던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리랑카의 불치사, 중국의 법문사는 지금도 많은 시도들이 성지순례 할 때 꼭 찾아보고 싶은 곳으로 꼽는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리가 보여 주는 신비로운 현상들로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신비로운 현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교 신앙 활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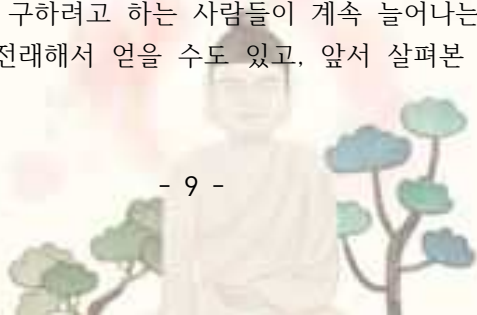


부처의 진신사리는 처음부터 양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살펴보았던 사례를 떠올려 보자면, 마우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8만4천 개, 즉 많은 수의 사리를 분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흐르면서 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생겨나고, 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싶은 욕구와 필요는 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신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사리의 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진신사리의 양적 한계에 근거해서 사리가 나누어진다는, 즉 분신한다는 개념이 발생합니다. 특히 8세기 중국에서 번역된 밀교 경전에서는 인위적으로 사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리는 성스러운 물건, 즉 성물입니다. 따라서 그냥 분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신비로운 현상이 사리 분신 과정에 동반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불사리가 성물로써 여겨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도에서 전해진 진짜 부처의 사리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사리의 신이한 현상은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여겨지게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처와 동격으로 여겨진 불사리에 의한 황제권의 정당화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진신사리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신이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인됩니다. 사리가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서 성물로써 권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사리가 보인 신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스로 쪼개져서 여러 개로 나누어지고 스스로 빛을 내거나 향을 풍기거나 또는 공중으로 떠오르는 신비로운 이야기는 불교에 대한 경외심을 높여 주고 또 사리를 경배하게 함으로써 불교 신앙 활동 자체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리 신이 현상 중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사리 신이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리 감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리는 인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래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리 분신의 관념의 발생에 따라서 사리를 얻는 방법으로는 가득에 의한 것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강승회와 관련한 설화는 매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승회는 오나라 왕인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 21일의 기한 내에 불사리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자, 비어 있던 병 속에서 소리가 나더니 그 안에서 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리는 오색의 빛을 발했다고 하네요. 또 쇠망치로 깨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권은 이것을 보고 감복해서 발심하게 되고 절을 짓게 되는데요. 이것이 중국 강남 지역의 최초의 사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리 감득 사례가 확인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국청사 금당에 석가불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준비하는데요. 이 불상 안에 봉안할 사리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천보와 같은 사람들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백의관음 앞에서 향을 피우고 예를 갖추자 이윽고 사리 1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리는 아무 때에나 필요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펼치고자 하거나 또는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발해야만 감득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 감득이 가능하려면 불교에 대한 진실된 신앙심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리가 나타낸 신이 중에는 사리가 스스로 나눠져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나뉘어짐’, 즉 자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리 신이는 사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리를 전래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득할 수도 있



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사리의 수가 스스로 나뉘어져서 사리의 숫자가 증가하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 세조 때에는 사리 분신과 관련한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세조실록에서는 여러 차례 사리가 나누어졌다는 보고를 왕에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죄수를 사면한다거나 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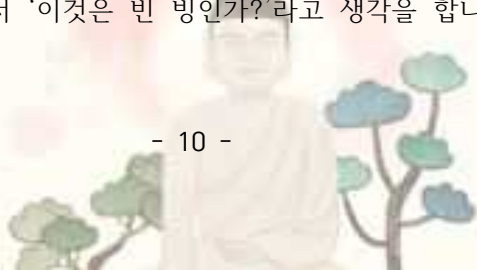
사리의 신이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빛의 발현, 즉 방광입니다. 사리를 감득할 때나 또 사리가 분신할 때 사리는 빛을 발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강승회의 사리 감득과 같은 사례는 그림으로도 표현되고 있거든요. 둔황 막고굴 232번 굴에 잘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여러 색깔의 빛이 사리가 담긴 그릇에서 쏟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후한 명제 때 사리를 감득했을 때도 사리는 5가지 색깔의 빛을 내었고, 뿐만 아니라 공중에 떠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현종은 왕위에 오른 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현화사를 창건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이 현화사비에 잘 남아 있습니다. 현화사에 탑을 만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이 시기 상주 지역에서 무려 500개의 사리가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떠다니는 신비로운 현상이 연출됐다고 하고요. 더불어 이 사리가 흰색과 붉은색을 띠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리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신이한 현상으로는 깨지지 않는 견고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원주림에서는 부처의 사리라면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서지지 않는, 즉 불쇄의 신이한 현상은 특히 감득한 사리가 진짜 사리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 시험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보았던 강승회의 사리 감득 이야기에서 오나라의 손권은 사리가 나타났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방망이로 치고 불에 넣어보는데도 사리가 전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야 감동해서 사찰을 만들었던 것이죠. 고려시대의 이곡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죄나 돌로 쳐서 부수려고 하고 불태우려고 해도 사리만은 그대로이다.’라고 하면서 사리의 견고한 신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가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사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성스러움은 다양한 신이 현상과 함께 설명되면서 더욱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리를 봉안한 곳은 탑이죠. 따라서 신이를 나타낸 성스러운 사리를 모신 탑의 조성 기록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국 낙양의 백마사는 후한의 명제가 인도에서 온 축법란 등을 위해 세운 절인데요.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반대해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명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불사리가 빛을 내고 공중에서 떠다니는 영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불사리를 봉안하면서 탑을 조성했던 것이죠.

백제의 탑이라고 하는 제석사의 탑은 현재 모습은 남아 있지 않고, 사진에서처럼 목탑터만 남겨져 있습니다. 일본에 남겨진 불교 관련 영험을 모은 관세음응험기의 내용은 백제 제석사 탑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39년에 벼락을 맞아 7층 목탑이 무너지는데요. 탑에 가보니 주춧돌 심초석 안에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과 금강반야경을 사경한 동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관리가 사리병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단단히 봉해져 열어볼 수 있었고, 또 병을 들고 비춰 보아도 안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흔들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것은 빈 병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리병인데



사리가 없으니 이상하게 여겼죠. 그래서 관리가 궁에 들어가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백제의 무왕은 스님을 청해서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러자 병뚜껑이 스스로 열리게 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불사리 6매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이걸 보고 불사리는 불에도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고요. 불사리는 어디든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됐고, 절을 다시 지어 불사리를 공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리들은 모두 불교에 대한 믿음을 고양시키는 신앙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기도와 같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지극한 정성에 의해 사리를 감득할 수 있고, 또 사리의 신이력을 체험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를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리가 지닌 다양한 신이 현상을 살펴보고, 그 신이 현상에 담기 불교신앙적 의미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고대의 사리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

강의 개요와 '화엄'의 의미

불탑 및 사리 신앙 수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사리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의 사리 신앙 강의를 통해서 고대의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리 신앙의 여러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 신앙의 성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국 고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에, 그리고 신라는 5세기 초에 불기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 백제에 사리가 전해진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경우, 위덕왕 때 일본 승려에게 불사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백제에 사리가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승려인 도선이 편찬한 불서 '광홍명집'에는 601년에 삼국의 사신이 각각 본국에 가져가서 탑을 세워 봉안할 사리 1매씩을 청하는데요. 이때 황제가 조서를 내려 허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리 전래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남겨진 신라 진흥왕 때의 기록입니다. 진흥왕 10년인 549년에 양나라로부터 신라에 불사리가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각덕이 유학을 했다가 본국인 신라로 돌아올 때, 양나라의 사신 심호와 함께 불사리를 전하게 된 것이죠. 이때 진흥왕은 여러 관료들에게 흥륜사 앞길에까지 나가서 사리를 맞아들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당시 신라 사람들의 사리에 대한 높은 예경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신라에 사리가 전래된 대표적인 사례는 7세기 선덕여왕 때 자장이 가져온 사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장은 중국에 유학했다가 돌아오면서 불두골, 불아, 불사리 100립을 전래하게 됩니다. 불두골, 불아가 전래됐다는 것을 통해서 자장이 골아형 사리도 함께 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 851년인 통일신라시대에 원흥이 불아를 추가로 전하기도 합니다. 자장이 전한 불사리는 황룡사탑, 태화사탑, 그리고 통도사에 안치되면서 불사리 신앙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자장은 황룡사에 탑을 건립함으로써 나라의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며 선덕여왕에게 9층짜리 목탑을 건립하기를 건의합니다. 이 탑은 다음 해인 646년에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 사리 신앙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 단서는 중국의 양나라와 수나라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양나라와 수나라의 사리 신앙은 인도의 아소카왕의 이야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소카왕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그것이 양했고 8만4천 탑을 전국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아소카왕이 이렇게 진신사리를 공양하고 탑을 세우는 일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국왕이 사리를 소지하게 되면서 부처로부터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은 동아시아 사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의 양무제는 아소카왕과 관련된 옛 탑을 발굴하거나 상서로운 불상을 우연히 구해서 자신이 아소카왕의 전승을 계승한 중국의 전문성왕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탑을 만들고 사리장엄구를 봉안하고 불상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양나라의 사신을 통해 불사리를 전해 받은 신라도 이러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겠죠. 수나라 인수연간인 601년에서 604년에 걸쳐 실시된 전국적인 규모의 사리탑의 건립도 매우 주목됩니다. 북조 출신의 수문제는 남조의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 사리 신앙을 정치적 선전물로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인수사리탑은 108개 주에 걸쳐서 112기 이상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사리탑을 건립한 것은 중국에서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수문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사리탑을 건립해서 국가의 사상적 통일을 도모했던 방식은 인도 아소카왕의 8만4천 탑을 모델로 해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신라로 돌아와 보면, 진흥왕대 전후의 신라는 한참 백제와의 연합 작전을 통해서 한강 유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 시기에 비해 고대국가로서 급격한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 신라 사람들은 불교의 사리 신앙이 중국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유사한 방식이 신라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황룡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로서 의미를 지녔습니다. 황룡사의 주지는 당시 불교 교단의 최고자인 국통이었다는 것에서도 그 위상을 알 수 있죠. 황룡사 9층 목탑의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 황룡사 찰주본기는 통일신라 때인 경문왕 11년, 871년에 이 탑을 새로 고치고 나서 적은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탑을 세웠기 때문에 통일신라를 이룰 수 있었고 또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황룡사는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난 사찰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곳에 세워진 사리를 봉안한 목탑은 고대의 사리 신앙이 내포한 정치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도 신라 왕실에서는 왕권 강화와 연결시킨 불사리 신앙을 계승해서 사리장엄구와 탑의 건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감은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절은 문무왕을 위해서 신문왕이 건립했는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현재는 2개의 탑과 건물터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삼국통일을 완료한 문무왕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이 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런 문무왕을 위해 세운 사찰이 바로 감은사입니다. 이곳에 남겨진 2개의 탑에서는 호국신앙의 상징인 사천왕상이 새겨진 사리함이 발견됐습니다. 사찰이 왜 창건되었는지, 그리고 사리함의 형식과 같은 것을 통해 탑과 사리에 대한 신앙이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정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리의 신이 현상과 관련해서 백제 왕흥사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은 주목됩니다. 이 명문을 통해 창왕, 그러니까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사리를 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래는 사리가 2매였는데 묻을 때 신비롭게 변해서 3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리 신이 현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사리가 스스로 나뉘는 현상인 '자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 신이를 통해 여기에 봉안된 사리가 진신사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덕왕은 그가 왕으로서 진신사리를 공양할 수 있는 성스럽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왕임을 입증할 수 있었겠죠. 이전 왕인 성왕이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위기 상황에서 즉위한 위덕왕은 즉위 초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그가 즉위한 지 14년이 되는 567년경부터는 중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등 왕권 강화를 도모하면서 여러 사찰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흥사에서 나타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리 신이 현상은 그런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왕이나 국가를 위한 사리 신앙 이외에 다른 성격의 사리 신앙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서사 석탑 사리함은 경북 봉화군의 취서사에 전해오던 것인데요. 납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둘레와 밑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리함은 신라 경문왕 때인 867년에 제작된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 명단이 발원하고 아들인 승려 언부가 그 어머니의 뜻을 이어 탑을 만들고 사리 10립을 봉안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명단이 개인적으로 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발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왕실이나 국가의 안녕을 바라면서 사리를 봉안한 탑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사리 신앙도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고대에 사리 신앙과 연계해서 많은 탑이 만들어진 정황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에 절들이 별처럼 별려 있었고 탑들은 기러기처럼 늘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중국 측 기록에서도 백제에는 승려와 절, 그리고 탑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에 많은 탑이 조성되는 데에는 사리 신앙과 연관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더불어 탑을 만드는 행위가 공덕을 쌓는 일임을 불교 교리적으로 설명한 경전이 전래된 것도 탑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조탑공덕경은 680년에 한역된 경전인데



요. 이 경전 번역에 신라 승려 원측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의 내용에 따르면 사리 또는 4구계, 즉 연기법송의 구절을 탑 안에 넣어두면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있는데요. 이 경은 704년경에 당나라에서 한역되었는데, 다라니를 서사하고 탑에 넣으면 수명이 늘어나고 악업이 없어져 삼악도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다라니가 지니고 있는 공덕을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중국에서 보다는 통일신라시대의 탑 조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706년에 중수된 황복사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가장 겉면에는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내용에 따라서 99기의 작은 탑을 새겼고, 또 이 경을 납입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내용에 따라 이 탑을 중수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경이 704년에 한역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아 통일신라 사회에서 이 경전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탑을 중수하는 데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후 통일신라 탑 중에는 이 경전의 영향을 받은 많은 탑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창림사탑이라든지 앞서 살펴봤던 황룡사탑의 중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동화사 비로암의 삼층석탑이라든지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 등이 있습니다.

고대의 사리 신앙 강의를 통해 삼국의 사리 신앙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사리 신앙의 정치적 기능과 의미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리 신앙이 확산되고 다양한 탑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고려의 사리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 고려의 사리 신앙

탑과 사리 신앙의 네 번째 강의는 고려의 사리 신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사리 신앙 사례를 알아보고, 그 신앙 사례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사리 신앙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왕실에서 행해진 사리에 대한 신앙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은 946년, 즉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불사리를 직접 받들어 10리나 걸어서 개국사에 모셔둡니다. 이후 1018년인 현종 9년에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파괴된 개국사탑을 수리하면서 사리를 안치하고 계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현종은 전국에서 여러 종류의 불사리를 수집했던 것 같은데요. 현화사 창건 내력을 기록한 현화사비에 의하면, 현종 11년에는 어머니의 고향인 황주의 진신사리와 아버지의 능 근처에 있었던 보명사의 불아를 왕이 교외에 나가 직접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상주에서 나타나 빛을 발하며 공중에 떠다니는 신이한 현상을 보여 준 사리 5백 여 과를 맞아 오게 합니다. 이처럼 현종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종류의 사리를 궁궐 안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종은 출생부터 왕위 즉위까지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지 못했는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종은 국왕으로서의 권위라든지 왕실의 번영을 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리에 대한 신앙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려 왕실의 사리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골아형 사리에 대한 신앙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현종은 진신사리뿐만 아니라 불아를 봉안했었습니다. 이 점은 고려 초에 골아형 사리에 대한 신앙이 왕실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보다 구체적인 골아형 사리 신앙은 예종 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종은 송나라로부터 불아를 가져옵니다. 이 사실은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불아를 가져온 사람이라든지 가져온 이후에 보관한 위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사신인 정극영, 이지미 등이 가져와서 내전의 십원전 원편 전각에 보관했다고 하고 있고요. 고려에서는 사신 왕자지가 사행 선물로 가져왔고, 이것을 외제석원과 산호정에 두었다고 합니다.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시 송나라로부터 골아형 사리가 고려로 전해진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예종이 성간을 궁궐로 가져와 공경하다가 본래의 소장처인 동화사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간이라는 것은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진표가 미륵불로부터 받았다는 점찰간자를 가리킵니다. 이 점찰간자는 제자인 영심이 속리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가 다시 심지가 9세기 전반에 동화사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성간을 당시 사람들은 미륵불의 손가락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 왕실이 골아형 사리에 대한 신앙 활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골아형 사리 신앙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 문제 등에 의해 진신사리 신앙이 확산되었다면, 당에 들어와서는 골아형 사리에 대한 신앙이 황실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이어지죠. 보주형 사리가 분신해서 그 수가 늘어난다는 특징을 지닌 것과는 달리, 이 골아형 사리는 분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아형 사리는 희소성이 높고, 따라서 가치가 높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독자적 위상을 지니고자 했던 황실로서는 골아형 사리가 지닌 희소성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법문사에 모셔진 부처님의 손가락뼈에 대한 신앙은 무척천 등에 의해 당 황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8세기 이후 신라의 사리 신앙은 당과 달리 골아형 사리 신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려 현종 때 골아형 사리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시 고려 왕실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예종은 재위 전반기에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후반기에는 이자겸 등 외척의 세력이 강화되었던 때입니다. 예종으로서는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종은 송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불아와 불골 사리를 가져와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골아형 사리를 공양하는 행위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평안이라든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실이 골아형 사리를 통해 독보적인 권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진신사리 신앙은 고려시대 여러 계층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도사에 봉안된 사리에 대한 신앙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사리 신앙 강의에서 신라 승려 자장이 불사

리 100립을 가져왔고, 이것이 총 세 곳에 나눠져 모셔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 한 곳이 통도사입니다.

고려시대 통도사에 모셔진 불사리, 즉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 사례는 무척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던 고종 때, 즉 최우 집권기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종은 통도사 계단 위의 석부를 들어 올려 사리가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4개의 사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죠. 고종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시기는 몽골의 침공으로 인해 고려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진신사리가 고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즉, 진신사리의 존재는 민심을 회복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통도사의 진신사리는 지공스님의 공양법회로 그 위상이 더욱 확고해져 우리나라 진신사리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는데요. 지공은 1326년 고려에 왔던 인도 승려입니다. 그가 고려에 왔을 때 당시 고려인들은 그를 서가의 현신이라고 여기며 추앙했습니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던 지공이 통도사에까지 와서 자장이 가져왔다는 진신사리를 공양하면서 법회를 열었으니, 통도사의 사리는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도사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은 사리 분신 신이와 연관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됩니다.

예를 들면 동문선에 수록된 통도사석가여래사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379년에 통도사 주지인 월송이라는 사람이 왜적들이 이 사리를 훔쳐 가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사리를 챙겨서 개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사리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왕비는 사찰을 중수해 사리를 모시고자 해서 낙성법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고려의 많은 사람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물밀듯이 몰려와 사리에 예배를 하는데요. 사리가 분신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사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도사에 진신사리가 분신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정황은 김변의 부인 허 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허 씨는 남편 김변의 장례가 끝나자 절을 지어 명복을 빌다가 이후에 비구니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남편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신앙 활동 과정에서 통도사의 진신사리가 분신한 사리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통도사 분신사리들은 통도사의 사리가 진신사리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친 사리 분신 이야기들은 통도사 사리의 신비감이나 희소성을 감소시키기도 했겠지만요.

고려에서 사리 신앙이 확산된 모습은 왕륜사에 불상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고려 시대 문인인 이규보가 쓴 왕륜사장육금상의 영험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절에 불상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때 거빈과 효광이라는 비구가 내놓은 대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비를 하고 나면 사리가 남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면서 대가로 보시를 하게 해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광이 스스로 다비를 하자 사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사리를 가지고 가면서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효광 비구는 부처도 아니고 승려도 아닙니다. 비구가 다비 후에 남겨진 사리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리 신앙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고려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어디에 어떻게 봉안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탑에 봉안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탑이 아닌 다른 공간에 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상에 봉안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고대 통일신라 탑의 중수라든지 조성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이 컸던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려에 들어오면 보협인다라니경의 영향력이 확인됩니다. 이 경은 772년에 한역된 경전입니다. 특히 오월국에서 불교를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이 경전을 탑 안에 함께 넣는 것이 유행하는데요. 고려는 오월과도 밀접하게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보협인다라니경과 탑 조성에 대한 신앙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정사 팔각구층탑 사리구에서 보협인다라니경이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불국사의 탑을 중수하는데, 그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수 과정에서 보협인다라니가 새롭게 탑 안에 헌납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특한 형상의 보협인탑이 여러 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탑에 사리를 봉안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기가 매우 큰 탑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문헌 자료를 통해서 그 형상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연복사탑은 높이가 200척이나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탑을 보고 난 후에 남긴 기록을 보면, 탑 안에 들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탑은 처음에는 보제사 탑이라고 불렸고요. 고려시대 이규보는 이 절 근처에 살면서 이 탑을 보기 위해 그쪽 방향에 창문을 널만큼 좋아했다고 하네요. 고려 말에 이 탑을 중창할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탑 안에 사리와 대장경을 모셨고 아래층에는 비로자나부처의 초상을 모신 독특한 구조의 탑이었다고 합니다.

사리는 탑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모셔져서 예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사리 신앙 사례를 살펴보면, 신이 능력을 가진 사리를 직접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리는 탑 안에 매납되기보다는 전각 안에 안치돼서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려의 경우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륜사에는 부처의 이빨과 지공의 정골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공민왕이 이곳에 와서 그것들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머리에 이고 궁궐 안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만약 탑 안에 봉안해 두었다면 이런 형식으로 사리 신앙을 행할 수는 없었겠죠. 사리를 별도의 공간에 두고 예경했던 모습의 조선시대의 사리 신앙에서도 확인됩니다. 사리는 탑 안에 봉안하는 것 이외에도 불상에 넣어 불상이 지닌 신성성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인도 간다라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통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2~13세기부터 불복장이 활성화되면서 확산되었다고 파악됩니다. 그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는 기록이 국청사금당주불석가여래사리영이기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국청사의 금당 안에 모실 불상을 완성했는데, 그 불상 안에 넣을 사리가 없어서 사리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상 안에는 사리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라니를 비롯해 불교적 상징을 담아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리고 사리도 넣어 가지고 불상의 신성성을 더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리 신앙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시대 사리 신앙의 여러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왕실의 골아형 사리 신앙이 가진 정치적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었고요. 사리 신앙이 여러 계층에게 확산되어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사리 신앙이 다양화되었음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사리 신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

조선의 사리 신앙

불탑 및 사리 신앙 강의의 마지막 강의인 조선의 사리 신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시대 사리 신앙 사례를 검토하고 이 시기 사리 신앙의 성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이전 시기와 달리 성리학을 기조로 건국했고 따라서 조선 전기부터 불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전통도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불교도 조선 시기 내내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존재 가치를 영험과 기적으로 드러내서 불교의 종교성을 강조하기에 사리 신앙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도 사리 신앙은 지속됐는데요. 사리 신앙이 지닌 유용성은 무엇보다 조선의 국왕이 사리 신앙을 비호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특히 조선 전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조 대 흥천사에 건립된 사리각과 관련한 사례는 주목됩니다. 사실 태조는 조선 건국 직전에도 금강산에 사리를 모시기도 했었으니까 그의 사리 신앙심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조는 흥천사를 세우는데 이 흥천사는 한양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찰을 통해서 국가 및 왕실을 위한 불사를 행했습니다. 흥천사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자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그런 능침사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에서 중요한 건물은 사리각입니다. 태조는 사리각 조성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에 진신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통도사에서 송림사로 옮겨두었던 사리 등을 가지고 오게 하기도 했었죠. 이 건물은 현재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3층 정도 규모의 건물 형식이었고 내부에 사리를 봉안한 석탑을 두고 또 대장경으로 장엄했다고 합니다. 태조는 진신 사리를 확보하고 그것을 흥천사의 사리각에 모셔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각종 불사를 벌임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웠던 고려 시대 왕실의 사리 신앙의 모습을 조선에서도 잇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조 이후 사리 신앙과 연관해서 살펴볼 조선의 왕은 세종입니다. 세종 즉위 30년 되던 해인 1448년에 세종은 궁궐 안에 불당을 지어서 선대의 왕들을 추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 불당을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라면서 관료들이 무척 반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종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경복궁 안에 내불당이 완공되고요. 이것을 축하하는 법회인 경찬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세종은 모여 있는 대중들에게 자신이 지닌 효성이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또 대중에게 감응을 보이기를 기원하면서 그 증거로 ‘사리 감득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사리의 감득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심이 전제되어

야 한다는 것을 짚어봤던 그런 모습과 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사실은 그때 사리 감득을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정성이 닿았는지 불전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퍼지니 사람들이 사리탑 앞에 가서 붓니다. 그러자 사리 2립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활약했던 승려인 신미의 동생 중에는 김수온이 있는데요. 김수온은 세종의 명령을 받아서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리영응기를 저술합니다. 그리고 이 사리 감득과 관련한 내용들은 세종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세종 대 나타난 사리 신이는 세종의 뒤를 이었던 문종 대에도 나타납니다. 고대부터 왕실의 신성성을 담보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던 그래서 사리가 지닌 신성성을 이용해서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모습이 세종 대에도, 문종 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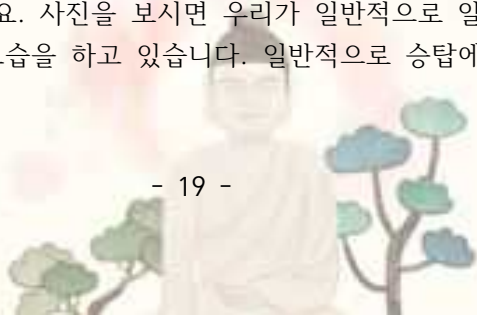
다음으로 살펴볼 왕은 세조인데요. 세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도 가장 불교를 숭상했던 왕입니다. 그가 불교를 숭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왕위 찬탈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민심을 회유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에 사람들에게 잘 믿어지고 있었던 불교를 적극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세조는 즉위 10년을 맞이해서 한양 도성 중심부에 석탑을 세우고 사리와 함께 원각경을 봉안하게 됩니다. 사실 세조 때에는 사리 분신을 비롯한 상서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내용들이 세조실록에 25회 이상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세조는 사리 분신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으면 사면을 해 주고 또 백관들의 하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불교적 사리 신이 현상을 사면을 통해서 기념함으로써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던 의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각사를 창건하게 된 것도 사리 분신 신이가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세조의 측근 세력인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법회를 베푸는데요.

그러자 하늘에서는 감로가 내렸고 또 모여 있던 승려들이 탑을 둘러싸고 열심히 수도하자 수백 개의 사리가 분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리를 공양하니 사리가 또다시 분신했습니다. 세조는 이와 같은 상서로운 현상을 듣고서 ‘이것은 매우 기이하다. 그러므로 사찰을 세우겠다.’라고 명했던 것이고 그것이 원각사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조 이후인 성종 11년에는 이곳 원각사의 불상이 스스로 돌아섰다는 굉장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면서 원각사는 불교 영험의 중심지가 되었고 나아가 예종 대에도 사리 분신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은 권위와 번영 그리고 나라의 평안 등을 기원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성물인 사리를 공개적으로 공양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불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불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조선 전기에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왕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사리 신앙을 매개로 하여 민심을 달래고 그것을 통해 동시에 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사리 신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 주도의 사리 신앙이 늘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봉인사에 있는 사리탑은 세자 이질의 만수무강 그리고 자손 번창을 기원하며 사리를 봉안한 것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불탑의 형태가 아니라 승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탑에는 승살이 그러니까 승



려의 사리가 봉안되지만 기록을 통해 여기에 불사리가 봉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광해군 11년에 명나라로부터 사신이 사리 1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궁에 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불교를 배격하고 있었던 신하들의 반대로 궁중에 사리를 결 과적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어머니인 공빈 김씨의 능침사찰인 봉인사에 안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례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사리 신앙을 배격하면서도 개 인적인 사리 신앙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도 민간에서 사리 신앙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 에서 살펴봤던 흥천사 사리각을 둘러싼 사리 영험이 뛰어나다고 민간에 많이 알려져서 이 곳에서의 사리 분신의 신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정황들이 살펴집니다. 하지만 기록의 한계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사리 신앙의 구체적인 양상까지는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정덕 5년명 사리 장엄구라든지 계사명 사리 장엄구의 명문의 내용은 민간의 사리 신앙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정덕 5년명 사리 장엄구의 경우는 총 3 쌍의 부부가 발원해서 제작한 것인데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최은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장 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인 그가 제작에 참여하면서 이전 시기의 양식과 왕실 발원품의 특징을 계승한 사리기가 만들어졌다고 추측됩니다. 또 계사명 사리 장엄구는 시주자인 승 표 부부가 계사년 2월에 발원해서 사리가 모셔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장엄구는 모두 어디에서 발굴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할 수 없지 만 분명한 것은 왕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발원해서 사리를 봉안했다는 모습은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시대 불탑은 20여 기 정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새로 만 들어진 불탑의 수는 적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미 다수의 사찰에 불탑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탑을 중수해서 활용하거나 또는 불상이나 범종 등 다른 불교 조형물을 조성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시대 사리 신앙 사례를 검토해서 왕실 중심의 사리 신앙의 성격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III . 퀴즈

1. 문제: 8대 탑을 발굴하여 사리를 8만4천으로 나누어 전국에 탑을 세움으로서 불교 신앙을 확산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인도의 왕은 누구인가?

정답: 아쇼카왕

설명: 아쇼카왕은 8대 탑을 발굴하여 사리를 8만4천으로 나누어 전국에 탑을 세움으로서 불교 신앙을 확산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다.

2. 문제: 사리가 진짜 부처의 사리인지 검증할 때 나타나는 사리의 대표적인 신이함은 무엇인가?

정답: 부서지지 않는 불쇄의 신이

설명: 사리가 진짜 부처의 사리인지 검증할 때는 부서지지 않는 불쇄의 신이함이 나타난다.

3. 문제: 자장에 의해 전래된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 중 지금까지도 사리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 남겨진 사찰은 어디인가?

정답: 통도사

설명: 통도사는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 중 대표적인 사찰로 불린다.



4. 문제: 여러 종류의 사리들 중 고려 왕실에서 왕권의 신성성을 보여주기 위해
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리는 어떤 사리인가?

정답: 골아형 사리

설명: 고려 왕실에서는 골아형 사리를 사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5. 문제: 조선시대는 성리학 이념으로 인해 사리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말은 참인가, 거짓인가?

정답: × 거짓

설명: 조선시대에도 사리 신앙은 지속되었다.



IV. 토론

□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답이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 된 이유를 사리의 의미와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V. 참고문헌

-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 해안, 2003
- 김혜완, 「고려후기 불사리신앙-진신과 분신사리 신앙-」, 『역사와현실』91, 2013
- 김연경, 『조선 전기 사리 신앙』, 석사학위논문, 2018

